

정보화시대 불교 인프라 구축해야

교수불자대회서 김범수 교수 '웹2.0과 불교문화' 발표

현대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 과거 신문과 방송 등으로 제한된 정보를 접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셀 수 없을 만큼 다량의 콘텐츠가 매일 생성되며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을 '클릭'하는 사람들은 광고와 이념, 선전, 게임 등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다.

정보화 시대에서 불교문화의 생존을 위해서는 콘텐츠 생성, 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해 불교와 관련한 정보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범수 인하대 교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가 8월 17~19일 영월 법흥사에서 개최한 2009 한국 교수불자대회에서 '웹2.0과 불교문화'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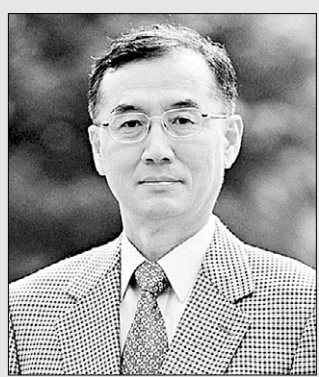
김 교수는 "웹2.0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교환하게 됐지만 수많은 정보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웹2.0시대에서 불교문화의 존속시키고 다른 그룹에 전달하려면 정보인력 양성 등은 필수"라고 주

장했다. 웹2.0시대는 유튜브 동영상 웹 사이트 등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 이뤄지는 인터넷 시대로, 1990년대 이후 대중화되며 제2의 인쇄혁명으로 불리던 인터넷이 진화한 형태를 말한다.

사람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에 접촉하는 정보에 의해 집착하고 자신이 만든 상상력(의, 意)에 집착하기 쉽다. 이런 까닭에 각 종교도 자신들의 교리를 콘텐츠화해 인터넷에 다량 배포하고 있다.

김범수 교수는 "문화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려면 그 문화를 이용하는 정보의 양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문화의 존속조건으로 '정보량=인구수×두뇌속의 평균 정보량'의 공식을 설명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잉카문명 등은 침략자에 의해 인구수·정보량이 통제돼 문화가 말살된 경우도 있다. 민족과 국가 간의 문화말살 외에도 같은 문화권 내에서는 여러 문화가 충돌하면 정보량에 의해 문화의 존속이 결정된다.



김범수 인하대 교수

김범수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문화충돌 형태가 종교간 충돌"이라며 "한국 사회 곳곳에서 불교를 비롯한 한국전통과 개신교 문화가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신도에 의한 사찰방화와 불상·단군상 파괴가 그 예다.

김 교수는 "과거 자행되던 과거한 시대 문화말살 정책과 별도로 지금은 (정부와 공직자에 의한) 합법적 형태의 종교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한국은 현재 교직원을 특정종교인으로만 채우는 종교편향적인 대학에 국가

가 세금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김범수 교수는 (지금 교계에서 치중하는) 종교편향 등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불교문화의 정보량을 증가시켜야 불교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이웃종교의 콘텐츠가 불교 콘텐츠 수를 상회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맞물려 불교문화가 말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불교계는 타종교와 비교해 정보화시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종교간 문화충돌에서 불교문화가 살아남으려면 △문화 중심인 불교도서관 확대 보급 △도서관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는 인터넷 아카이브센터 운영 △불자간 소통 확대를 위한 사찰별 위원회 운영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에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불교문화와 관련한 정보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무위사 백의관음도' 천태신앙 산물

이승희씨 '동악미술사학'서 주장...의식용 예불화로 그려진 것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후불벽 뒷면의 백의관음보살도(보물 제1314호)는 관음도 가운데 빼어난 수작으로 불린다. 백의를 입고 연잎을 타고 오는 관음보살이 합장을 한 노비구를 향한 모습이 그려진 이 백의관음보살도가 천태신앙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술사학자 이승희(홍익대)씨는 동악미술사학회(이사장 윤범모)가 최근 발행한 학회지 <동악미술사학> 제10호에서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도와 관음예찬'을 발표했다.

이씨는 "1430년 효령대군이 수륙의식을 위해 건립한 무위사 극락보전에, 1476년 후불벽과 천장이 설치

됐다. 이때 의식용 예불화로서 무량수삼존불과 백의관음도가 그려졌다"고 말했다.

무량수삼존불과 백의관음도가 불교의식 안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주목한 이승희씨는 관음예찬의식을 중심으로 개조된 전각(극락보전) 뒤쪽에서 행해진 의식을 살폈다.

이씨는 "백면 앞에 무량수삼존후불화를, 뒷면에 백의관음을 그린 것은 백의관음에게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기원하는 <백의예문>의 왕생경로가 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희씨는 "<백의예문>의 의식용 신상체계는 정토사상과 결합된 천태신앙의 한 형태"라며 "의

식에 근거해 보면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한 노비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예불자의 모습"이라 설명했다.

책에는 이외에도 △현재 심사정의 사군자화 연구(백인산) △<담시화보(唐詩畫譜)>와 조선 후기 화단(하향주) △조선 후기 16나한도상의 계승(신광희) △식민지 조선의 표상: 석굴암의 공론화(강희정) △남양주 흥국사의 조선전기 목조16나한상(정은우) △5-6세기 연화문수막새를 통해 본 신라와 주변제국의 교류(김유식) △요대 조양복합 출토 경당연구(주경미)가 수록됐다. (02)2260-3156 조동섭 기자

학술 문화재 소식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개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이 8월 3일 인터넷 홈페이지(museum.buddhism.or.kr)를 개설했다.

박물관 홈페이지는 전시 소개, 소장품 정보와 교육과 강좌 학습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자료 마당, 전국 성보박물관 현황을 소개한 성보박물관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리뷰' 5호 발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는 최근 <불교학리뷰> 제5호(불광출판사)를 발간했다.

책에는 불교문화연구소가 지난 2월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에 소개된 논문 등이 수록됐다.

이외에도 △<유마경현소(維摩經玄疏)>역주 연구(아마구치 히로에) △<마하지관(摩訶止觀)>의 무생문(無生門) 해석에 대한 연구(광도 스님) △천태 지의의 연구(사지해경) 등 투고논문과 △<대지도론(大智度論)>에 인용된 <중론(中論)>송 고찰(사이토 아키라, 정유식 역) △종카파의 연기와 공의 존재론-중공과 불공(不共)의 승법(勝法)에 대하여(후쿠다 요이치, 김재권 역) 등 번역문이 담겨 있다. (04)1731-3114 조동섭 기자

만불학술회의 26일 개최

만불회(회장 학성)와 불교학연구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만불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불교에서 바라본 생명의 본질과 현대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불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의 가치(정병조 동국대 교수) △근본불교입장에서 본 생명(황순일 동국대 교수) △불교윤리를 통해 본 생명(허남결 동국대 교수) △선수행 입장에서 본 생명(서재영 동국대 외래강사) △생명공학의 입장에서 본 불교적 생명관(우희중 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010-3772-8179 조동섭 기자

한국테라와다 학술세미나

한국테라와다불교(대표 뺨나와로)는 8월 28일 오후 1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09년 한국테라와다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전통과 테라와다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테라와다불교의 발생과 흐름(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한국테라와다불교의 현황과 과제(임승택 경북대 교수) △초기불교에 나타난 수행자의 생활상(이재량 동국대 외래강사) △한국전통 불교와 테라와다불교(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발표된다. (02)517-2841 조동섭 기자

국민장 개선 세미나

국민장으로 치러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 후 국민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예학과는 8월 18일 동국대 만해관 B253에서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3회 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행 법·제도에서 본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방향(안우환 을지대 교수) △천주교 상례에서 본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방향(조옥중 신부) △불교적 관점에서 본 공론화된 죽음에 대한 의례(구미례 성보문화재단연구원) △국민장 상복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순남숙 한국생활문화연구원장) 등이 발표됐다. (02)2260-3098 조동섭 기자

국립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기공

백제금동대항로 오악사 모티브... 2011년 완공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8월 13일 박물관 본관 서편에서 복합문화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2011년 5월 완공예정인 국립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복합문화센터는 백제금동대항로 오악사(五樂土)를 모티브로 해 오감(五感)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미를 체험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38㎡ 규모로 어린이를 위한 전시·문화체험 공간인 사비문화체험실을 갖추고 2011년 5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권상열 관장은 "이번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관람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이 되는 올해 국립부여박물관이 지역문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계기"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원종 스님 명예박사 수여

동방대학원대 21일 후기 학위수여식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상욱)은 8월 21일 오전 11시 교내 별관 5층 사자후전에서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제주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제주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 등 명예박사 2명, 박사 4명, 석사 5명, 연구과정 2명, 풍수지리학 최고지도자과정 14명이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는 원종 스님은 중앙승가대의 김포 이전에 기여하는 등 중앙승가대가 승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는 제주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스님은 또,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NGO 활동을 벌여왔다. 중앙승가대 동창회장, 남양주시 민포럼 비전21 공동대표, 불교포럼 이사, 실천승가회 창립 발기인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강화도 보문사와 불암사의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불교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현재는 관음사 주지와 제주불교신문사 발행인, 한라선원장, 제주불교교민대학장의 소임을 맡고 있다. 또, 서예·문인화 대가인 서근섭 교수도 명예서화심미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조동섭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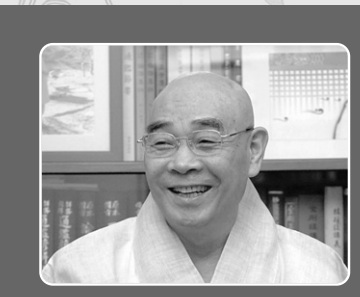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공생선원 가을 개강



혜거 큰스님의 유식30송

- 법사 : 혜거 큰스님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날짜 : 9월 10일 목요일

참선반(돈오입도요문론) / 참선입문(선문촬요)

- 9월 1일(화) 참선반
- 9월 2일(수) 참선입문
- 법사: 무각스님
- 시간: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청년법회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현프라자 7층 Tel 02)900-2448